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1

진정한 신앙생활

김 영 균 지음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진리침례교회 설교시리즈

©2016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1. 진정한 신앙생활

지 은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6. 3. 30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글씨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비매품>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진정한 신앙생활

본문 : 롬 1:1~4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축복의 결과이지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저희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경배가 영과 진리로 합당한 경배가 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 다가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충성 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

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대다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을 면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죽은 뒤 복된 내세의 보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본질은 아니며 구원으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장해 가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이 불 탈 운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

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의 이야기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앙생활에서 전진하고 성장해 가다 보면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구원의 결과이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목표와 목적, 핵심,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잉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라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삶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흐뭇함과 기쁨을 누리고, 자녀는 장성해서 이제 부모를 모시고, 섬기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복 받고, 잘 풀리고, 잘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마냥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복 받고 잘되고 잘 풀리게 되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필요한 것도 채움 받고 하는 것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고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와~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었느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초점을 흐리게 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구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영어의 전치사를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며 신앙생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결단을 할 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보라~! 내가 원하는 한 인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매우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

인 겁니다. 자연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할 때 인간은 유일하게 행복과 기쁨을 맛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러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놓친 채 밤낮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당장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등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초점과 멀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구원을 숙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in Jesus Christ) 있는 생명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다!’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초점이 그쪽에만 가면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귄,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 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 16)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1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 5:9~13)

9절을 보면 사람의 증언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세종대 왕께서 한글을 창조하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사실을 믿습니다. 또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 하면 다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

은 못 믿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한 일을 다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믿지 않습니다.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거짓말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과 수없이 많은 방송과, 수없이 많은 책으로 수천년 동안 외치고 알렸지만 안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대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 3:4)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 둘씩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성장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를 통해서 일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지혜 등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다

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 17:3)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선생님이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서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해 가듯이 또는 엄마 뱃속에 잉태 된 그 태아가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 한 아이로 탄생하듯이 그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성장이요 성숙이며,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온 우주의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짐승에는 짐승의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다만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

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속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되었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자라고 있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9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고후 4: 7~12)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생명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입니다. 10 절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리 봐도 너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나는 골

프 치러 가는 것 빼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 저건 아닌데”, “잘못된 건데”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선한 행동이 나오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정도 고통과 시련이라면 나 같으면 자살할 텐데... 저 사람은 웃고 있으니 왜 그럴까?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보듯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다”라는 책을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믿지 않으면 내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흐릿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되돌아봅시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9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0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11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빌 3:7~11)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맛보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것인데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with Jesus Christ)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단지 영원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보내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결과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 나랑 사귄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의 자매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멋진 사람이 너 나랑 사

컬래?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사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더럽고 추해서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 피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부터 사귀어볼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실컷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뜻대로 살테니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한테 내 안에 들어오시되 손님방에 계세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 계세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라며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을 한번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신데 왜 나를 버리네, 마네 그러냐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하나님께서서는 아들의 신부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조건

은 없고 단지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 사실 우리 또한 멍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너무 신기해합니다. 믿고 나니까 그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과의 사귄 것은 어떤 사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4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6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1:1~7)

내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

들과 함께하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초대 받길 원하는 것이 청와대 만찬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밥 먹고 만나는 걸 굉장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를 사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귀면 사귄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큰 기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친구나 애인 등을 사귄 때 사귀면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가 주고 받는 가운데 점점 우정과 사랑이 깊어가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더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귀기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같은 사귀기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얼마만큼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은 백 개가 넘고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타이틀은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 ‘행정부수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기억하시죠?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그분과 제대로 사귀고 있습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새로운 면을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귀기는 항상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귄 때는 보이지 않으시

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통해서 사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항상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교제’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는데 즉시 배로 들어가더니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귀이 마냥 달콤하고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귀은 형제 자매들과의 사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자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20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23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19~25)

그분을 경배하고 사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내고 아뢰면서 이러한 진정한 예수님과과의 사귀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처럼 단지 교회만 왔다갔다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사귀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with) 라고 하는 전치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23절을 보면 예수님과 수직적인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교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평적인 교제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하고만 교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사귀는 사람은 당연히 지체들과도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고 고통가운데 있는지 살피고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제와 사귀가 있어야 올바른 사귀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말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골치 아프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3~4분후에 참석했다가 끝나기 3~4분전에 썩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은 정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맞지가 않으니 여기 같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랑 놀러

가고 영화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끼리 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의 성품인 육신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드높이거나 섬기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높일 때는 대부분 마귀의 영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요일 5:1)

〈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for Jesus Christ) 섬김입니다.

구원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for) 섬김입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 주군을 만나 그를 위해 죽도록 복종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을 위해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고 또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을 따라 평생 스승처럼 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를 알아가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바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 5:12~17)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며, 낭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인지를 솔로몬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또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을 진정으로 사귀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거나 불행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 자신을 섬기고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1~2)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몸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귀와 눈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듣고 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피아노를 치든지 휴지를 줍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가야겠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단정하고 깔끔하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22 종들이,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23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2~24)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애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가정일이든 무엇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 하니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거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도 대부분 부모 속을 썩이고 어찌다 한번 가뭄에 콩 나듯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부모가 흐뭇해할 정도로 장성하게 되어 부모를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내적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7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17)

내 인생을 희생물로 바쳐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를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과 돈과 시간을 모두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택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나(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 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받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 가면 천사가 되는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된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엡 5:1~2)

섬김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 돈, 마음, 내 육체를 모두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by Jesus Christ) 열매 맺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안에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암전하게 겸손한 척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롬 7: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때 우리의 옛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죽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에 그 전 남편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벌한가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주인, 나를 노예로 부려먹고, 속박하던 그 옛사람 즉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부려먹지 못하도록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좋은 남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맺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맺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제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맺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그냥 간단하고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제 야외에 나가서 벼를 보았는데 아직은 익지 않아 파랗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엄청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게 될 텐데, 벼들이 잘 견디어 내면 노랗게 알곡이 익어서 가을에 아름다운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

면 인내와,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5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이,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7 너희가 징계를 건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 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 이냐? 8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9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5~11)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환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거나 딱 2가지 이유입니다. 육체를 단련하면 유익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몸짱, 에스(S)라인, 식스팩 성형, 화장품, 약품 등을 허구한날 사용하고 단련해도 유익이

적지만 경건에 이르는 운동과 단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이 때로는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9절

“3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4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5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열심을 다하여~” 여기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냥 미적지근한 자세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올인(all in)하였기 때문입니다.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인내를 넘어서야 결국 하나님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겨우 믿음에 이르렀는데 단번에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려고 하다가는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7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의 친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면 인사하지 말라고 해도 두 번 세 번 먼저 인사하고 그립니다. 그 다음은 사랑인데 이것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8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9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11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풍성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 안(in)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with)사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로 예수님을 위해(for)섬기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로 예수님에 의해(by)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 보세요.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 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2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3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나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엘.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
하시는 보상〉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라온누리

